

# 대학생들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와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제미경, 전영자, 전예화

인제대학교 교수, 인간환경복지연구소 연구원

## The needs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the prejudice toward women immigrants by marriage of college students

Mie Kyung Jae\*, Young Ja Jeon, and Ye Hwa Jeon

Professor, The Institute of Human Environmental Welfare, Inje University

### 1. 서론

현재 한국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국제결혼 등으로 민족적인 측면에서 단일민족임을 주장하기 힘들게 되었고, 우리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의 문화를 반영하는 다문화교육의 필요성도 증가되고 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자기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야 함은 물론 다른 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수용적 자세가 요구된다. 이렇듯 주체적이면서 다양성을 요구하는 세계화 시대에는 그에 맞는 새로운 교육이 요구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문화 교육이다(장인실, 2006).

다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한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문화 집단에 속해 있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상호 이해와 평등 관계를 중시하고 다양한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지식, 태도, 가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한국인 남편과 결혼으로 입국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고, 때문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생각을 조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둘째, 다문화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들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정책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2. 본론

#### 2.1 조사도구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란 어떤 현상에 대해 적합하지 않은 의견이나 태도를 말하며, 고정관념이란 편견의 인지적 측면으로 어떤 인종 집단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특성이고 감정이란 편견의 감정적 구성요소로서 집단 구성원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인 느낌 또는 정서를 말한다. 고정관념은 이전연구를 참고로 하여 문항을 구성한 뒤 요인분석을 통해 부정적 고정관념 7문항과 긍정적 고정관념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신뢰도는 각각 Cronbach's  $\alpha$ =.85, .46으로 나타났다. 감정은 이학식 외(2002)과 안신호 외(1993)의 연구를 참조하여 13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부정적 감정 6문항, 연민감정 2문항, 긍정적 감정 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역시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부정적 감정이 .87, 연민감정이 .54, 긍정적 감정이 .79로 나타났다.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은 단일 문항에 대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 2.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방법

자료수집은 김해시 소재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2007년 10월 15일부터 29일 까지 단대, 학년, 성별을 고려한 할당표집방법으로 343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Win 14.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 중회귀분석, 군집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 3. 조사결과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녀학생은 각각 50%, 연령은 평균 22.5세이며, 39%는 부모와 거주하며 나머지 61%는 기숙사에 거주하거나 자취를 하고 있었고, 종교가 있는 경우가 60%, 용돈은 평균 31만원이었으며, 월평균 가계소득은 336만원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은 평균 3.58점으로 중간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은 다문화 교육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셋째,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수(성별, 연령, 용돈, 종교유무), 다문화체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편견(부정적 고정관념, 긍정적 고정관념, 긍정적 감정, 연민감정, 부정적 감정)을 독립변수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은 부정적 감정이 낮을수록( $\beta = -.318$ ), 긍정적 감정이 높을수록( $\beta = .318$ ) 긍정적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beta = .187$ ), 연령이 많을수록( $\beta = .158$ ), 용돈이 적은 집단일수록( $\beta = -.137$ ),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을 주위에서 본 적이 있는 경우( $\beta = .129$ ) 다문화 교육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설명력은 27.9%였다.

### 4. 제언

한국은 현재 다문화에 대한 정책도 미흡하고, 모든 것이 준비단계에 있다. 매년 늘어나는 국제결혼 속에서 한국은 점차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반면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태도는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연구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여성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았으나 다문화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다양성을 요구하는 세계화시대에 사는 젊은이들로서 다문화사회에서 책임있는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 실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다문화 또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나 교육당국의 정책입안이나 다양한 프로그램 수립에 도움이 되고, 대학생들이나 여성결혼이민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문경희, 한국에서 문화주의(multiculturalism) 모색: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부산여성정책연구, 2006.
- 2) 안신호, 이승혜, 권오식, 정서의 구조 : 한국어 정서 단어, 한국심리학회지, 7(1), 107-123, 1993.
- 3) 양철호, 김영자, 외국인 주부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6. 127-149, 2003.
- 4) 여성가족부,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 2006.
- 5) 이학식, 임지훈, 소비관련 감정척도의 개발, 마케팅연구, 17(3), 55-91, 2002.
- 6) 장인실, 미국 다문화 교육과 교육과정, 교육과정연구, 24(4), 27-53, 2006.
- 7) 함재봉, 김혜숙, 다문화교육이 농촌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재정정책논집, 9(2), 193-215, 2007.
- 8) James A. Banks (모경환, 최충욱, 김명정, 임정수 공역), 다문화교육 입문, 아카데미프레스, 2008.

학생으로 구분하여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참조). 1단계 분석 결과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소외감은 소득에 의해 의미있게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단계 및 3단계 분석을 보면, 중학교 청소년의 소외감에 대한 소득의 영향력은 부와의 정서적 친밀감( $\beta = -.45, p < .001$ ) 통제 시(2단계) 또